

성화대·명신대 폐쇄, 현지표정

꼭잡긴 강의실·텅빈 교정 ‘을씨년’

학생·교수들
“우리가 무슨 잘못”
역울함 호소



교과부의 학교폐쇄 방침이 알려진 7일 강진 성화대학의 기획처·사무처·학생처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은 정확한 사태 파악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일 퇴출이 결정된 명신대와 성화대학은 학기 중 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강의실도 대부분 문이 굳게 잠겨 있었으며, 간혹 수업을 받으러 온 서너 명의 학생이 눈에 띄었지만 이미 퇴출을 예상 못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다만 그동안 학교 폐쇄만은 막아보려 노력했던 일부 교수와 학생들이 취재진에 역울함(?)을 호소할 뿐이었다.

명신대 한 관계자는 “학교폐지, 정원감축, 국고보조금 재정지원감축, 수업료대출제한대학 등의 행정처분이 많이 있는데도 학교폐쇄라는 극단적인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과부 공문이 도착하면 효력정지 처치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명신대 임기호 사무처장은 “학교 폐쇄 결정에 대한 교과부의 공문을 아직 받아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황당했다”며 “40여인을 반납하라는 교과부의 지시에 대해 법적 다툼이 없는 3억원 정도는 이미 이행했고 다름의 여지가 남은 37억원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성화대학도 정문 입구를 지키는 직원마저 없었으며, 오가는 학생도 안보여 쓸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학본부 앞에는 학생회와 성화대학 교수협의회, 성화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장기 농성을 위해 설치한 천막이 자리를 잡았고,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과 피켓이 어지럽게 내걸려 있었다. 이들이 쓴 피켓에는 ‘우리는 끝까지 성화대학 학생이고 싶다’, ‘공부하고 싶은 우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등의 글귀가 눈에 띄어 학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대학위와 교수협의회도 ‘교과부는 성화대학에 임시이사를 즉시파견하라’, ‘이행이 실패하는 성화대학을 정상화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학교 퇴출이 일방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토목환경과 재학생인 정모(21)씨

“이미 폐교될 줄 알고 있어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며 “모든 것이 설립자 잘못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도 “교과부가 특별감사 이후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퇴출을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교수회의를 열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교과부 종합 감사서 부정·비리 적발

시정요구 불이행에 끝내 폐쇄 명령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대학교조개혁 ‘퇴출 1호’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 퇴출을 계기로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어서, 부실 대학들의 살아남기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출대학 선정 어떻게 했나=교과부는 지난 4월11일~27일 명신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명신대는 대학 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하위 서류제출 및 임의사용, 교원수업 및 학생 성적 관리 부적절, 시간제 등록생 운영 부적절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점취소 미이행, 횡령액 미회수 등 종합감사 시정요구사항 총 17건 중 5건만 이행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9월 시정요구를 하고, 2차례에 걸친 학교 폐쇄 경고(계고) 조치를 했지만 대학은 대다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퇴출로 내몰리게 됐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62조, 폐쇄할 수 있도록 한 이법 제72조가 근거 법조항이다.

■명신대·성화대학 감사일지

Table with 2 columns: 명신대학, 성화대학. Lists inspection dates and findings for both universities.

성화대학도 과정은 마찬가지다. 6월27일~7월15일 특별감사 결과 부정·비리가 20건 적발돼 시정요구와 2차례 폐쇄 경고 처분이 내려졌지만 학교 측은 불과 1건만 이행했다.

◇소송으로 가나=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이미 학교 폐쇄 경고처분에 반발해 교과부를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학교폐쇄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태다.

성화대도 교과부가 행정업적에 처우 처결문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절차를

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목적성 행정절차의 부당함과 구성원의 피해를 따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법 절차를 밟았으며 학생의 학업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행정소송 결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의 반면 학교 측은 처분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소송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내년 예산 심의·행정감사 돌입

광주시·전남도의회 내달 22일까지 시민생활 조례안·F1 수익구조 초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내년 도·시·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8일 제2차 정례회 개최식을 열고 내달 22일까지 45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8일 강준태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어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전남도의회도 오는 15일 제 264회 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내달 22일까

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상임위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도의회는 16일부터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국 및 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다음달 8일부터 2012년 본예산·2011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활동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특히 이번 사무감사 기간 중 F1 대회에 대한 수익구조 개선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 강도높은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가격 폭락 배추 대량 사들인다

재배농 지원, 김치센터서 묵은 김치 ‘감칠배기’ 판매 학자금 이자 전액 지원도... 친서민 정책 드라이브

광주시가 배추값 폭락으로 울상짓는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김치센터서 배추를 대량으로 매입, 묵은 김치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또, 내년부터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중 학생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친서민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7일, 재배면적 급증에 따른 과잉 출하로 배추값이 폭락해 큰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 배추 재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김치센터를 통해 배추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강준태 시장이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배추값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배추밭을 갈아엎는다고 한다. 광주 김치센터에서 배추를 최대한 많이 구입해 묵은 김치를 담가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중 김치센터에서 4억원어치 상당의 배추를 매입, 1~2년 묵은 김치로 담가 서울 등지에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묵은 김치를 저장할 저온저장창고 임차비와 불류비, 마늘과 고추 등 부재료 비용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학자금 이자 가운데 학생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으로 3억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할 경우 대학생 1인당 평균 12만 원씩, 모두 1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홍철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온수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한 인건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평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림출판사 | 감성적 지출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황성산소를 얹어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옫나무 진액 참옫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옫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옫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에도 공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된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옫물을 만들었습니다.

▶우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우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옫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옫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